

01 교회소식

꿈나무들의 행복 충전!

아동주일학교 주최로 2018년 여름성경학교가 열려 어린이들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천국의 소망으로 더욱 충만해졌다.

02 생명의 말씀

권능 (2)

타고난 중심을 바꾸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권능으로는 능히 사람의 마음을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03 기획특집

대표적인 육의 속성들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강사로 열렸던 '2017 기관장 교육' 말씀을 통해 재창조의 권능을 힘입어 벗어 버려야 할 육의 속성들을 살펴본다.

04 간증

“능력과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주 안에서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 김기호 장로와 귀신의 세력에서 놓임받고 삶에 행복을 찾은 말레이시아 류평핑 성도 간증.

만민뉴스

제850호 2018년 8월 5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두근두근 콩닥콩닥, 하나님 주신 사랑”

어린이들의 천국 잔치, ‘2018 여름성경학교’ 열려



지난 7월 29일(일)부터 8월 1일(수)까지, 아동주일학교 주최 ‘2018 여름성경학교’가 열려 GCN방송으로 생중계 되는 가운데 본당 및 성전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양생활로 영적인 믿음이 성장하여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은상은 빅토리팀(서울), 동상은 심포니앙상블팀(서울), 인기상은 트윙클팀(대전)이 수상하였다(사진 1~2).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마음 닦아가기

개강예배(강사 이수진 목사)를 시작으로 어린이들은 ‘말씀과 기도’, ‘공과’를 통해 악이 없는 성결한 마음에 하나님의 선과 사랑이 가득 채워진 ‘은 영’(살전 5:23)에 대해 배웠다. ‘성령충만기도회’ 시간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고자 간절히 기도하였다(사진 7~9).

주교사와 어린이들은 영적인 ‘물’인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양식 삼고 영적인 ‘햇빛’을 받아 성령 충만한 신

찬양과 다양한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아동주일학교 교장 조민경 전도사가 인도한 ‘파워 지저스’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온몸으로 찬양하며, 맑고 순수한 목소리에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 드렸다(사진 3~6).

올해로 11회를 맞은 ‘만민아동예술제’에서는 7개 팀이 참가해 뮤지컬과 워십, 연주, 무용, 중창, 재즈 댄스, 편 댄스 등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발휘하여 영광 돌렸다. 대상에는 목자의 열매팀(마산), 금상은 주얼리팀(구미),

주 안에서 예쁘게 자라는 믿음의 꿈나무들

야외에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통해 치료 받은 간증들이 전시된 ‘재창조의 권능 사진전’, ‘하늘보기’, 천국을 느낄 수 있게 꾸며진 ‘포토존’, 팝콘 코너 등이 진행되었다. 연합활동으로는 유아부·유치부·초등1학년은 ‘요셉과 함께 떠나는 여행’, 초등2학년~6학년은 ‘우리는 아버지 열매’를 진행하여 찬양과 신나는 율동,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다양한 학년 별 활동도 있었다(8면 참조).

권능 (2)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권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요 14:12)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Senior Pastor Dr. Jaerock Lee

- 예수교연합성결교회 총회장
- (사) 기독교 세계부흥선교협의회 상임총재
- (사) 국회사랑 구국기도 총연합회 공동총재
- 세계기독교방송네트워크(GCN) 이사장
- 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WCDN) 이사장
- 만민국제신학교(MIS) 이사장
- 연합성결신학교 이사장
- 목회학 박사, 명예신학 박사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등에 방송 설교
- 미국 뉴욕, 워싱턴, 볼티모어, 메릴랜드, L.A., 하와이, 일본,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페루, 러시아, 독일,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에스토니아 등에서 연합대성회 인도

근본 하나님의 권능은 사람이 헤아릴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권능은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며 권능에 담긴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가장 좋은 것, 곧 새 예루살렘을 주시려는 선과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시려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권능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권능입니다. 타고난 중심을 바꾸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는 가능하지요. 죄악에 물든 마음을 정결하게 변화시키며, 육의 마음을 영의 마음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번 호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권능을 힘입어 벗어버려야 할 육의 속성 중 대표적인 네 가지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변개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영은 변함이 없고 영원한 것인 반면, 육은 변질되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육이 있는 만큼 변개합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자기도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해야지' 했다가도 다음 날 회식이 잡히면 또 다음날부터 하는 것으로 마음이 바뀝니다. 담배를 딱 한 개피만 피고 끊겠다며 담배를 휴지통에 버리지만 반나절쯤 지나면 다시 꺼내오는 사람도 있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내린 열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찬양하며 기뻐했지만, 이후 어려움을 만나면 곧장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눈앞에 있어도, 날마다 만사를 내려주시는 기적을 보면서도 아랑곳하지 않았지요(민 11:4-6, 21:5).

오늘날에도 구원받은 기쁨에 온 세상을 얻은 것 같다가도 연단이 오면 이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충성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좀 쉬고 싶다, 내 시간도 갖고 싶다' 하면서 육적인 것들을 취해가지요. 금식이나 기도를 작정했다가도 쉽게 여기거나 하나님 앞에 서원해 놓고도 시간이 지나면 말을 바꿉니다.

이처럼 무엇인가 "하겠다" 했지만 안 한 것이나, "하지 않겠다" 했지만 행하는 등 자기 안에서 변개함을 발견하고도 '큰 죄는 아니니까' 하고 넘어가는 일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변개하는 육의 속성은 반드시 벗어버려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변개함이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오는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면 알 수 있지요.

그들은 자기 소유를 팔아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고자 했는데 막상 드리려고 하니 아까워서 일부를 숨기고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는 성령을 속인 것이

라며 저주하니 그들의 혼이 떠나고 맙니다. 단 한 번 변개했다거나, 단 한 번 거짓말을 했다고 이렇게 큰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지요. 거짓말도, 변개함도 하나둘 쌓이다 보니 결국 큰 죄를 낳았고, 이로 인해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했습니다. 이처럼 변개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하라' 하시면 그대로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습니다. '버리라' 하시면 버리고, '지키라' 하시면 한결 같이 지키지요. 그러니 한 번 받은 은혜 속에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2. 자기 유익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간사함'을 버릴 수 있습니다

간사한 마음이 있으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간사한 사람은 말과 행동이 수시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간사함 때문에 속임, 변개함, 배신이 나오게 되지요.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결코 어겨서는 안 되는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서원을 깨뜨립니다. 이는 변개함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며, 이로 인해 구원받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간사한 사람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활한 계략을 꾸밉니다. 이 외에도 권세자에게 빌붙어 아부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남의 탓을 하고, 불의한 일을 보고도 피해를 볼까봐 잠잠히 있고, 잘못을 숨기기 위해 말을 돌려대고 갖다 붙이는 등 많은 비진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간사함이 있으면 교묘하게 말을 바꿔 남의 공로를 자기 것으로 만들거나 자기 잘못은 남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잘못을 하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고 비겁하게 핑계를 만들어 냅니다. 환경 탓, 남의 탓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지요. 이런 간사함과 비겁함도 깊은 육의 속성이요, 인류에게는 뿌리 깊은 죄악입니다.

첫 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 3:12) 하며 자신이 잘못된 일에 하나님까지 끌어들이는 비록 하와가 미혹했다 해도 자신이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어겼으니 자기 탓인 것입니다. 더구나 질서상 머리 된 남자로서 하와를 잘 다스리지 못했으니 그 잘못까지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바른 마음이지요.

이처럼 간사함이 있으면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난처한 상황이 되면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수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교회 요시는 길**
- 7호선 남구로역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 | |
|-------------------|----------------------------|
| 주일 대예배 | 1부 10:00 AM 2부 11:30 AM |
| 주일 저녁예배 | 3:00 PM |
|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예배 | 9:00 PM |
|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예배 | 11:00 PM |
| 금요일예배 | 11:00 PM |
| 수요일예배 | 7:00 PM |
|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 8:00 PM |
|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 9:00 PM |
|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 4:00 PM |
| 토요일예배 [아동부] | 3:00 PM |
| 다. 일월야 기도회 |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
| 새벽예배 |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 리 은 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권능은 전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인간 경작의 마지막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한 ‘비밀병기’입니다.
더 나아가 권능을 통해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깨달아 닮게 하시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 기관장 교육 ‘권능’ 중에서

시로 말을 바꿉니다. 자신으로 인해 남이 오해를 받고 누명을 써도 모른 척하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면 이런 모습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한 번 정한 것은 한결같이 지키며, 진실하고 곧은 마음으로 누구에게나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3. 각종 더러운 죄악을 파생시키는 ‘간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룩함과 경건함을 좇아 살지 않으면 간음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 5:28) 하셨습니다.

간음으로 인해 참으로 많은 죄악이 파생됩니다. 호색과 동성애를 비롯 각종 더러운 것들로 발전하기도 하지요. 또 죄악이 관영하여 재앙이 임한 곳을 보면 거의 성적인 타락이 동반됩니다. 이처럼 간음은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 할 육의 속성이지요.

간음을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안목의 정욕을 철저히 차단하면서 불같이 기도하여 생각과 마음을 제어해야 합니다. 조금의 빌미라도 내어주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기에 경계를 늦추면 안 되지요. 중도에 멈추지 말고 죄성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노력해야 하며 미세한 조짐도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성보다 이성과 대화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내 배우자가 아닌 이성에게 관심을 받을 때 기분 좋게 느낀다거나, 상대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고, 잘 보이고 싶은 이성 앞에서는 말투나 태도가 달라지는 등 이런 모습들을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근본 뿌리를 뽑기까지는 안목의 정욕을 지속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TV나 영화, 인터넷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가장 좋은 통로이므로 삼가 절제가 필요합니다. 만일 자주 접하면 당장은 행함으로 간음하지 않는다 해도 육이 계속 심기니 죄성이 버려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말씀한 대로 정결한 것만을 담아 육의 속성들을 신속히 벗어버림으로 거룩하고 흠 없는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4.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전 10:24),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롬 14:7-8)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이지요. 이러한 사랑을 깊이 깨달은 믿음의 선진들도 주님과 영혼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심지어 범죄한 영혼들을 대신해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져서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리하겠다고 고백하지요(출 32:32). 약속의 씨 독자 이삭을 드리기까지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신뢰를 통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벼로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대하셨습니다.

이러한 신뢰와 사랑을 이뤄갈 때라야 하나님의 마음

을 더 깊이 헤아려 드릴 수 있고, 권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곧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육의 속성을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주를 위해 생명까지 바치겠다고 했어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결국 변개하고 배신할 수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짓말을 하거나 계략을 꾸미기도 합니다. 상대가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미워하고 멀리하지요. 나를 배려하지 않고 대접해 주지 않으면 감정이 상하고, 내 유익에 맞지 않으면 함께하던 사람들을 배신하고 땅을 지어 분리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알면서도 당장 유익이 되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이나 일가친척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해 주면 불편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유익을 구하니 서운함도 생기고 불편함도 생기며 다투고 원수지는 일까지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교와 같이 크고 대단한 일은 물론, 일상적이고 사소한 일 속에서도 범사에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자기를 비워 나가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권능으로는 능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자가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으며, 장차 새 예루살렘 성의 지극한 영광중에 영원토록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Jesus is love

하나님께 예배하고 갖가지 달란트로 영광 돌리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했던 '2018 여름성경학교'





저희 부부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를 읽고 은혜받아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아내가 작정기도 중 꿈에 세 차례나 보았던 바로 그 성전이였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셨다는 확신 속에 1991년 5월, 만민의 양 떼가 된 저는 당회장님의 설교를 통해 영적 갈급함을 해결받고 온전한 주일 성수와 십일조를 하며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2001년, 도리상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나니 심각한 고통을 심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는데 무언가가 발끝에서부터 가슴까지 올라오는 느낌이 들더니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급히 뛰고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었지요.

그 순간 당회장님의 ARS(자동응답서비스) 환자기도가 떠올라 여러 차례 받으니 점차 호흡이 안정되었습니다. 이후 잠이 들었는데 꿈에 당회장님께서 하얀 의사가운을 입으시고 손에 장갑을 끼시고는 제게 오셔서 심폐소생술을 하시듯 가슴을 세 번이나 강하게 압박해 주셨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 의사는 심장부정맥

이 왔었다며 재발의 우려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아무런 후유증 없이 17년 동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계기로 저는 마음이 새로워져 삶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가 더해졌습니다. 일산 지성전 성도들을 차량 봉사로 섬기고, 남지역장 사명을 받아 영혼들을 돌아보게 되었지요. 딸 김마리아 자매도 심각한 척추측만증을 당회장님께 기도받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해 치료받았고, 아내 이화자 권사도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하게 지역장 사명을 감당하니 가정에 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사건, 사고 많은 세상에서도 주 안에서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축복을 받은 저는 올해 또 한 가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공무원으로 28년 넘게 근무했는데, 지난 6월 30일 공직생활을 마치며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껏 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좋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심장부정맥을 치료받아 건강하게 살면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김기호 장로 (63세, 3대대 23교구)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돈을 버느라 저를 잘 돌봐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에게 매를 맞고 욕을 먹으며, 사람들에게도 무시를 당하니 항상 두렵고 불안했으며 슬프고 외로워 자신감도 없었지요. 게다가 몸도 많이 허약했습니다.

열네 살 때, 이웃집 여인이 우물에 뛰어들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고 현장에 다녀온 뒤로는 이상하게도 삶의 의욕을 잃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에 빠져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우울했으며, 자꾸만 자살 충동이 일었지요. 그 와중에 우연히 성경을 읽고 교회를 가보게 되었지만 꾸준히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2015년, ‘쿠알라룸푸르 국제 도서전’에서 정드보라 만민출판사 사장님을 만나 성결의 복음과 만민의 사역에 대해 전해 들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 『치료하는 여호와』도 구입하였지요.

이것이 인연이 되어 저는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WCDN(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 국제 기독의학 콘퍼런스’에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



“귀신의 세력에서 해방돼 우울증을 치료받으니 천국이 따로 없네요!”

츠평영 성도 (43세, 말레이시아)

는 데다 진리로 이끌어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여전히 영육 간에 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2016년 9월부터 인터넷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만민의 성도로 등록했고 날마다 말씀을 들으며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았지요. 그러자 몸에 있는 것이 견디지 못해 발작했지만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꿈을 꾸 뒤 정신이 맑아지고 평안해졌습니다.

2017년 8월, 만민하게수련회에 참석해 온전히 응답받고자 저는 ‘십자가의 도’ 설교를 들으며 지난날을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만민중앙교회에 도착하니 또다시 발작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날 것을 미

리 알고 두려웠던 것이지요. 귀신은 제게 나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저는 꼭 나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만민하게수련회 첫날,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제 두 손에 전율이 흐르면서 심하게 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힘이 없었고 말도 할 수 없었지요. 의식은 있었으나 몸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당회장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자 곧바로 귀신은 제 안에서 나갔지요. 할렐루야!

이제 우울증이 완전히 치료돼 기쁨과 평안이 넘치며, 가정도 화평해졌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으니 너무 행복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 2017년 만민하게수련회 시, 권능의 기도로 몸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가 간증하는 츠평영 성도.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0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73-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양주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3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성면 가락길 71 ☎043)297-001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성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재빌딩 10층 ☎032)421-0889,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352-8336